





#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김정은

##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 - 일군들의 땀!

## 당정책의 운명은 일군들의 어깨우에

오늘의 총공격에서 승리의 열쇠는 일군들이 쥐고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드높은 신심과 탁판에 넘쳐 새해진군을 힘차게 다그쳐가는 일군들속에는 신포시당 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이곳 일군들에게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방대한 일감을 해체계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 큰걸음을 내디딘 귀중한 경험이 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인식, 장군인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남은 사교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이다.》

새로 임명된 시당책임비서 한만홍동무는 시대의 요구에 비해 너무도 뒤떨어진 시의 전반실태를 놓고 생각이 깊었다.

오랜 기간 간를 하나 변변히 일떠세운것이 없다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시가 아직도 잠을 자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일떠세우야 시가 일떠세울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세운 시당책임일군은 당사업의 초점을 일군들에게로 집중시켰다.

모든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주고 일군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시당위원회가 중요하게 내세운것은 말만 하는 일군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일군으로 모습을 바꾸게 하는것이였다.

### 신포시당 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시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높이 세운 전투목표수행을 위한 막대한 투쟁을 통해 풀어나갔다.

풍어지구에 1만여㎡의 남새 온실을 짧은 기간에 건설할 목표를 제기했을 때였다.

곳 임명된 책임비서가 자제라산도 없이 그 방대한 면적의 남새 온실건설을 벌려놓았다가 언제 끝을 보겠는가. 아직 시에서 이런 일을 해본적이 없지 않은가. ...

어벌이 큰 전투목표를 놓고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런 백백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물론 조건이 어려운것도, 경험 없는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시당책임일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건설지휘부를 조직한 책임비서는 일군들을 데리고 건설부지로 확정된 곳에 나갔다. 그리고 전투현장에 불을 켜고 절절히 말하였다.

《제일 걸린 문제는 그 어떤 자체보다 일군들의 그릇된 관념과 일본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말 잘하는 일군보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일군이 더 필요합시다. 가장 무거운 짐, 이것이 바로 우리 일군들의 짐입니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달린다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것입니다.》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일군들의 정통을 쫓았다. 그만큼 충격을 주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부장이상 일군들에게 한계 호동책 분담

하고 그들사이에 경쟁의 불을 질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온실건설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기초와 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중벽체쌓기, 미장 등 모든 작업을 로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조건보장도 따라우자나 끝낼 힘이 들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걸 수목 인민의 행복이 커진다는 비사한 각오를 가지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뛰고 또 뛰었다.

시당위원회는 긴장한 자체문제를 행정일군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 부추되는 세멘트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 당일일군들이 직접 운송으로 들어갔다.

역시 군중은 선생이었다. 어느날 어느 한 광산의 로동자들과 주변마을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시당책임일군은 씩씩하고 희이나 학습도 현장에서 하면서 전투를 벌려 20일만에 끝공사를 끝냈으며 한달만에는 완공하였다.

지난해의 남새재분할을 하여 두달후부터는 남새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투쟁과정에서 얻은것은 컸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을 잡아서 깨운것이다. 다시말하여 말만 하는 일군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는 실천적 형태로 일군들의 모습을 일신한 것이다.

이런 실례도 있다. 시당위원회가 도시건설, 자연호흡식수도

화를 위한 1단계공사를 전개하였을 때였다.

불비한 수시동의 아파트들과 소년회관, 문화회관, 편의봉사방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도로와 우수 및 하수망을 정비해야 하는 개건보수목표는 실로 방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과 시체신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 교육 및 문화기관들, 지방산업공장들, 수시동의 아파트들과 편의봉사건물들, 수백㎡의 화장소실과 재고개축식리, 양로원 등 지난해에 건설 및 개건보수한 대상은 수십개에 달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의 지하점수로를 형성하고 침전지와 덩치큰 물탱크를 건설하였으며 판로굴착작업도 동시에 벌렸다. 불을 때서 합형부재의 양생기일을 단축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걸려야 한다던 집수양계작 및 설치공사를 한달동안에 끝냈으며 판로굴 및 물기도 불이 변색 나게 다그쳤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과 시체신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 교육 및 문화기관들, 지방산업공장들, 수시동의 아파트들과 편의봉사건물들, 수백㎡의 화장소실과 재고개축식리, 양로원 등 지난해에 건설 및 개건보수한 대상은 수십개에 달한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이곳 일군들은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몸은 언제나 땀에 젖어있었다.

◇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땀의 심장마디에 받아안고 새해진군에 나선 우리 일군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다.

라망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투쟁기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구역당위원회 정문앞에 세워진 직판들의 이 글판에는 더 많은 일감을 어깨에 지고 달려가는 이곳 일군들의 비상한 의지가 뜨겁게 박박 찍혔다.

구역당일군들은 바로 이 물음에 몇몇이 대답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전투장들로 달려나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땀을 흘려야 하는 고된 일군들이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정, 전생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집을 찾아 전정을 바친다.

이제 그들뿐이라. 대고조전역 그 어느 전투장들에 가보아도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있는 우리의 일군들, 믿음직한 전투투사들이 서있다.

◇ 혁명의 지휘정원들인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정책과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일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단위들은 레위에서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사관철한다.

황금의 노래 울려 퍼지는 초산땅에 가보라. 10여년전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이 천지개벽된 군, 자재의 힘으로 여러개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거처 나오는 원료로 지방산업공장들을 평평들터로 로동당당세소리가 울려나오는 군으로 되었다.

성전제강련업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년시대의 자람된 주체혁명산기머리들이 크게 전개하여 덕을 보는 튼튼한 후방기지들,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도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문화시설들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일군들이 고생을 하는것만큼 종업원들의 행복이 커진다는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스스로 만점을 지고 달려온 것이다.

반면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우소리나 하는 일군들이 있는 일부 단위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일군들의 어깨가 가벼워지면 인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것을 보여주었지 않는가.

결론은 명백하다.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서 산짐을 지고 달려 가면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실천적 형태의 일군들을 부른다.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에 민감하여야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 사업과 인민생활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뼈를 쥐고 피를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애국자, 인민의 총부여 되어야 한다.

단위사업성과는 단위책임일군들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되는것만큼 책임일군일수록 더 큰 짐을 지고 일군들과 대중의 앞장에서 달려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하며 높은 인종적자존심과 창조본능,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많이 찾아내야 한다.

일군들은 조건이 어려울수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신념과 의지를 버리며 파란만장공전으로 창조본능, 인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일군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뜻깊은 10월의 대축전경의 대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달려온 일군들이 몇몇이 들어섰다는것을 명심하고 오늘의 순간순간을, 하루 하루를 빛나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신천군 건설협동농장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을 타고 갔다.

신천군 건설협동농장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을 타고 갔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울며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운 그들, 혁명의 지휘정원들답게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맡아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불같은 열의를 다진 그들이다. 농장당일군의 모습이 돋보였다. 새해 첫날부터 전투장을 타고앉아 농장정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출에로 불러일으키었으며 지금 거름시어내기 전투장에서 결사적 일손을 다그친다.

### 일군의 위치는 들끓는 전투장

신천군 건설협동농장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을 타고 갔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울며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운 그들, 혁명의 지휘정원들답게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맡아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불같은 열의를 다진 그들이다. 농장당일군의 모습이 돋보였다. 새해 첫날부터 전투장을 타고앉아 농장정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출에로 불러일으키었으며 지금 거름시어내기 전투장에서 결사적 일손을 다그친다.

###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평양 출발.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천리길로정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귀중히 여기며 우리 조국을 천하의 영광으로 빛내어 나갈 애국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때마다 혁명가오들을 부르며 장의한 의지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자립성을 발휘하여 답사행군에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이 결의 토론했다. 답사행군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때마다 혁명가오들을 부르며 장의한 의지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자립성을 발휘하여 답사행군에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이 결의 토론했다. 답사행군대원들이 어렵고 힘든 때마다 혁명가오들을 부르며 장의한 의지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자립성을 발휘하여 답사행군에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이 결의 토론했다.

## 높은 실력, 불같은 실천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적 지휘정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투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 전투전의 전투

여러 사람들이 포전으로 들어 서고있었다. 발을 놓기 바쁘게 달려나온 순천시 원삼협동농장의 일군들이었다. 이 군들의 눈에 발가운데 무드기 쌓인 길이 문문 피어오르는 거름무지가 안겨들었다. (누가 벌써?)

이때 그들의 등위에서 문득 이런 말이 들려오는것이였다. 《조용들 하오, 명절날 농장원들의 흥을 깨소요.》

리당비서 리기복동무의 목소리였다. 어깨를 파고드는 거름지기를 지고 두엄이 그득히 담긴 손수레를 끌고있는 리당비서의 팔짓은 모습을 마추한 일군들의 눈가마에 뜨거우것이 고여올랐다.

리당비서에게 신고를 매운것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진군에 나선 각지 당일군들의 비상한 각오와 불같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국방향방곡목에서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있다.

### 전투전의 전투

이분한듯 모두가 승백내기로 거름들을 저날랐다. 대번에 큰 무지들이 들끓는듯 생겨났다. 이것은 농장이 새해 첫 전투에 들어가기 전야에 진행된 일군들의 첫 전투였다. 이 소문은 한일두일건너 삼시에 온 농장마을에 퍼져 새해 첫

### 땀으로 내짚은 첫걸음

어들을 헤쳐며 걸음을 다그치고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대리세멘트공장 초급당비서 김팔철동무와 일군들의 자제일군이였다. 잔들은 땀에 흠뻑 젖어도 공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던 하였다.

그들이 발길을 다녀온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전날밤 현장을 돌아보던 김팔철동무는 어느 한 살비대에서

전투에 진입하는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첫 전투의 분위기는 대단했다. 전투실적도 예상을 초월했다. 새해 첫 전투부터 원삼협동농장이 시적으로 단연 전진차리를 차지하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 연구사들이

연구사들이 받는 강의라든가 사람들은 거기에 출현하는 강사는 분명 학계의 권위있는 로 교수나 로박사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채굴설비연구소 연구사들이 받는 새해의 첫 강의를 출현한 강사는 놀랄게도 초급당비서 김팔철동무였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겨 주며 진행하는 강의의 시작부터 청강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우기 그들을 놀라게 한것은 어느 한 건설대상에 쓰이는 시추설비의 부분품을 국산화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렸을 때였다. 지난해에 연구원장한 침입식작업기를 실제로 틀면서 시추설비

이것이 그 한사람의 심정이겠는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고 대중속의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 단상

【조선중앙통신】

라보는 초급당일군의 땀은 얼굴에는 먼길의 피로가 다 풀린듯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지난 1월 1일 이른 새벽에 있던 일이었다. 결국 초급당비서는 땀으로 새해 첫걸음을 내짚은셈이었다.

### 반은 강의

의 부분품을 자체로 만들수 있는 착상도 펴겨주고 제기될수 있는 기술적문제를 풀며로서도 해결하는 그는 바라보며 연구사들은 무뎠을 했다. 그와 함께 가졌도 했다. 전문연구사들도 무색케 하는 초급당비서의 강의의 그들의 열정을 최대로 폭발시킨 불씨가 되었다.

연구사들은 분발하여 일떠섰고 단 며칠동안에 설계를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사들이 받은 강의, 이것은 당일군의 높은 실력이 대중의 정신력을 분발시키는 데서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두게 하는가를 보여준 생동한 거울이었다.

한 영철

우리 일군들의 이런 투쟁기풍을 대할 때마다 나의 가슴에 뜨겁게 차오르는것이 있다. 이제를 펼쳐서 타고다니며 거지에서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어 그런지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 같이 느껴지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렬차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던

### 일군의 주소

위대한 장군님 그 말씀, 한평생 굳건히 들으시오. 인

요새는 일군들을 사무실에서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기구구 심장에 새긴 즉시 많은 일군들이 전투장들로 달려나가 전진차리를 차지하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아래단위들에 내려가면 단위 책임일군들이나 만나보고 한창이나 한바퀴 돌아보는 유망직도 가 아니라 현장에 놀러오게 하라.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울 때까지 대중과 어깨를 결고 일관을 벌러나가는 일군들의 혁신적 투쟁기풍으로 하여 사무실들은 조용하고 전투장들은 전제없이 들끓는다.

###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김영철



# 두일령의 작은 산골집은 이 땅의 사랑과 정을 노래한다

## 구장군 중초키 35인민반 최명화, 류옥희 부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 한 인민의 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 식구처럼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두일령!

해발고 수백m를 헤아리는 이 외진 명승에 한채의 집이 있다.

구장군 중초키 35인민반 최명화, 류옥희 부부의 집이다.

는 냄새가 구수히 풍겨오는 산골집,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읽는 소리가 팽팡 울리고 마당가 여기저기선 노란 병아리들이며 검정강아지들이 사이좋게 뛰노는 이 집의 작은 트락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값진 재부가 가득 차있다.

피내고 피내고 끝없이 맺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이다.

우리는 여기에 두일령의 이 작은 집트락에 새겨진 무한한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를 한다것이 간단치 않았다. 더우기 그들을 피뎠던것은 어제날 잘못 불린 생활습성이 남아있는 형부자들이 밤그릇이 낮아지고 외진 산중의 정적에 싫증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했것이었다.

지친 다리를 끌며 아이들을 찾아 수신타 밥집을 걸은것은 그 몇번이였던가. 때로는 말뚝이 남아있는 형부자들이 밤그릇이 낮아지고 외진 산중의 정적에 싫증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했것이었다.

지친 다리를 끌며 아이들을 찾아 수신타 밥집을 걸은것은 그 몇번이였던가. 때로는 말뚝이 남아있는 형부자들이 밤그릇이 낮아지고 외진 산중의 정적에 싫증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했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꾸준하고도 피나는 헌신으로 아이들과 정을 맺었다.

이들과 혈육의 정을 맺고싶어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불어나는 아이들과 더불어 집은 좁아졌지만 최명화, 류옥희 부부의 마음은 넓어만 갔다.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집집마다 수는 붙어있고 최명화동무와 류옥희녀성의 몸에서는 거름배가 빠지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개구리를 길러 놓는것도 좋아한다. 새들에서 새알을 털어온 아이에게 지금쯤 엄마새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가져다 놓도록 한 이야기...

맨트, 철근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줄줄이 두일령으로 올라갔다.

뜻깊은 당생일기념일을 맞이하는 지난해 10월 드디어 새집들이를 하였다.

새집들이기쁨을 함께 나누려 군핵일군들이 두일령으로 올라갔다.

일군들의 축복속에 새 집으로 들어서며 최명화, 류옥희 부부는 고마움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채 눈물만 흘렸다.

집기기를 비롯한 부속들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연색텔레비전과 목욕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집, 밖에서 봐도 멋있고 들어와봐도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이 보금자리에 《중초키중학교 이통교실》도 꾸려져 교원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배워주게 되었다. 그날 밤 두일령의 새 집에서는 밤 깊도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 275만자루 품과 계산할수 없는 공

275만자루의 품!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이 말이 귀에 설고 보며 생소할것에도 모른다.

우리가 최명화, 류옥희 부부가 20년간 55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품을 굳이 275만자루라는 수학계산상으로 표현하게 되는것은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 품이 든다는 속담에 따른것이다.

친자식이라면 어머니품도 솟으며 기꺼이 되는것이 어머니품의 심정이라면 친자식도 아니고 낯이 낯은 자식을 수신타 이 날아끼워온 이들부부의 품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금성이를 데려온지 한달이 지난 어느날 류옥희녀성이 읊에 불일이 있어 집을 나설때였다.

며칠전부터 류옥희녀성이 읊에 나들이가는 기미만 보이던 집안에서 같이 가자고 조르던 금성이가 그날은 아예 마을어구에서 걸목을 지키고 서있었다.

왜 부러워하는가고 물으니 그저 가고있어서 그런다는 대답뿐이었다.

《왜 참, 읊가진 수신타리인데 어떻게 간다고 고집이냐?》

그때도 금성은 고집스레 어머니를 졸졸 따라오기도 하고 앞서달리기도 하며 읊까지 내쳐 걸었다.

읍거리에 들어서자 금성은 이전에 자기 가 살던 곳으로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이 집문을 열고 저 집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꾸준하고도 피나는 헌신으로 아이들과 정을 맺었다.

이들과 혈육의 정을 맺고싶어 스스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불어나는 아이들과 더불어 집은 좁아졌지만 최명화, 류옥희 부부의 마음은 넓어만 갔다.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집집마다 수는 붙어있고 최명화동무와 류옥희녀성의 몸에서는 거름배가 빠지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개구리를 길러 놓는것도 좋아한다. 새들에서 새알을 털어온 아이에게 지금쯤 엄마새가 얼마나 슬퍼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가져다 놓도록 한 이야기...

교양방식은 비록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애국이라는 씨앗을 뿌려주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된 자식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학습에서,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조국보위초소로 떠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학명초소에 서기도 하였다. 군사복무를 마친 아이들이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돌아왔을 때 그들부부의 마음은 얼마나 감개무량했었는지 짐작할 딸들이 손자애를 안고 친정나들이를 하는 기쁨은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하랴.

그들은 이렇게 55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대가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

과연 그들부부는 무엇을 바라서 세 피조를 거두기도 힘든 그대 그 많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것인가.

조국이 어려웠던 전후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국과 함께 성장했다. 천리마를 타고 나체초소로 조국은 그들에게 넓은 학교길을 열어주었고 사회주의공화국의 높은 명마루에 올라선 어머니대지의 그들의 희망을 한껏 가꾸고 아름답게 꽃피워주었다.

부모교육과 무상치료, 세균제도의 폐지, 해마다 받아오는 사랑의 선물, 날마다 늘어만 가는 기쁨과 행복...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때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이 고마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참된 사람이 되라.

힘내라!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새겨진 어머니 조국의 고마움, 그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부모들의 그 소박한 당부말을 안고 사는 최명화, 류옥희 부부였다.

그들은 이렇게 55명의 자식들을 자기들이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사 자식들이 그 술한 자식들이 키우는데만 바쳐진 공이 275만자루 품이랑도 해도 국가와 사회가 자식들과 자기 기쁨, 자기 자식들을 위해 들인 품은 그에 대비할수도 없는 2,750만, 2억 7,500만자루 아니 그 어떤 수학공식으로도 계산할수 없는 무한대한 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 무엇으로써도 계산할수 없는 무한대한 공!

바치고 또 바치고 보답할수 없는 어머니 조국의 그 고마움을 짐정에 안고 사는 참된 마음을 값높이 내세워준것은 어머니 우리 당이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부모없는 아이를 데려온 것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7년 봄, 통동판마음에서 살 때였다.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속에 가슴아픈 희생도 많았지만 그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신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하루밤을 자고나면 한 처녀교원이 부모 잃은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이 또 며칠이 지나면 산골집의 어느 한 부부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32명의 아이들과 한식습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눈물을 적셔주었다.

하루는 집에 들어온 최명화동무가 아름다운 소행이 실린 신문을 보여주며 안해인 류옥희녀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려고 어떨소.》

그때도 류옥희녀성은 허구된 웃음을 지었다. 《자식도 낳아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난 재목이 못돼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55명의 자식들을 자기들이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사 자식들이 그 술한 자식들이 키우는데만 바쳐진 공이 275만자루 품이랑도 해도 국가와 사회가 자식들과 자기 기쁨, 자기 자식들을 위해 들인 품은 그에 대비할수도 없는 2,750만, 2억 7,500만자루 아니 그 어떤 수학공식으로도 계산할수 없는 무한대한 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 무엇으로써도 계산할수 없는 무한대한 공!

바치고 또 바치고 보답할수 없는 어머니 조국의 그 고마움을 짐정에 안고 사는 참된 마음을 값높이 내세워준것은 어머니 우리 당이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엄마자랑을 하고있어서 수신타 먼길을 따라온 금성이, 철이 없다면 볼수 없는 그를 눈물맺힌 눈길로 바라보고있던 내인들이 류옥희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순간 류옥희녀성은 눈앞이 흐려졌다.

우리 엄마라고 소리치는 금성이의 목소리가 청청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다졌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 기념 우표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 기념우표(개발우표 1종)를 국가 우표발행국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주제 14(1925)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0대의 어린 나이에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로 정이 새겨진 우표에는 만경대고향집, 로령혁명사적립이 형상되어있다.

또한 우표에는 지금으로부터 40년전 광복의 천리길에 대한 답사행군길

을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젊은이들이 높은 취향과 높은 사색관대인들의 모습과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 마크가 그려져있다.

기념우표는 태양을 따르는 헤바라기처럼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혁명의 피를 흘리는 뜻이 이어나가려는 학생청소년들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있다.



# 당의 령도 따라 올 해 영농전투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

## 안악군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진행,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증산경쟁 호소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안악군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이 22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안악군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안악군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도현철의 보고이며, 당중앙서기 겸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오국철 동창회 청년작업반장 김형남, 안악농업대학 학생 리은정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사과 축산, 수산은 3배속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의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오곡리를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알곡생산을 높이는에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력사적인 신념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작전에서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의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오곡리를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알곡생산을 높이는에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력사적인 신념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작전에서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의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오곡리를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알곡생산을 높이는에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력사적인 신념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작전에서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의이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오곡리를 여러차례 찾아오시어 알곡생산을 높이는에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에하는 원수님들의 력사적인 신념에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작전에서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하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틀어쥐고 생산적양양을

## 기술도약을 이룩한 인재중시의 기업관리

대동강전기공장 전에서 최근년간 연속적인 기술도약을 이룩하여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당당히 내놓고 오늘날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세계적수준인 밀폐식변압기생산체제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몇개 나라의 특점물품만 되어오던 권철심변압기를 설계제작하여 국제시장에 당당히 진출하였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몇년전에 또 한번의 기술도약을 이룩하여 성능이 좋으면서도 원가를 적게 들이는 반밀폐식변압기들을 개발 생산하여 경제강국건설전투장마에 보내주었다. 지난해에는 도대시 기술을 혁신하여 단 한해사이에 10여종에 달하는 밀폐식변압기들의 설계로부터 시제품생산, 생산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물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의 중요한 요인을 이 공장 일군들의 인재중시의 기업관리에서 찾아보게 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이익을 결실시켜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의입니다.>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모든 제품을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만드는것, 이것이 지면인 미장국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이다. 그 실현을 위

## 평양 전자 의료 기구 공장에서 설비의 현대화와 기능공양성

설비의 현대화가 실현되어 덕을 보고있는 단위공을 선별하여 부속품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생산이 잘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융단형 결빙이 없었다.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수입설비의 주변장치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데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기계공의 기능문제였다. 설비에 대한 일반적과업만 시키고 충분한 기술습을 따라주지 않으니 그 운영을 기술적으로도 할수 없었던것이다. 오죽했으면 그에게서 차라리 전문가에서 생산능력을 더 높이는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이러한 실태는 그때 당의 최첨단과사상을 받들고 원동력마반을 비롯한 여러대의 중요기대들을 CNC화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었다. 이곳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설비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전문분야의 기술을 배운 새로운 기계공들을 데려왔는가 아니면 현장설비에 정통한 현존기술공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후자의 경우를 택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현대화된 중요설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데서 현존기술공들의 정교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 더 빠르다. 그들에게는 해당 설비들을 다년간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누구나 일하면서 현대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머구기 설비현대화

## 에너지절약형의 생산구조확립으로 안주뽕프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선대들이 령과 깃발을 붙여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근 안주뽕프공장을 많은 일군들이 찾았다. 작은 단위로부터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뽕프생산과 전력 관련이 없는 부문, 단위 일군들까지 앞을 다투어 찾아오는게 공평적인 목적이 있다. 에너지를 절약형의 생산구조 확립!

관 투자없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물품생산의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한 현실앞에서 그들은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는것이 기업관리에서 얼마나 큰 실리를 가져다주며 또 그것이 자기 단위뿐 아니라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게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리상이 아무리 높고 목표가 뚜렷하다 해도 좋은 방법론이 안받침되지 못하고 실현이 따라서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꾼은 주목할만 하다.

하나의 실례가 있다. 주물직장의 생산건물을 새로 마련해야 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전직 기술을 도입하여 증전에는 그대로 흘러나간다면 열거되지 모조리 철거수리할수 있을것인데 이 설계안대로 용선로를 건설해도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실리는

##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대동강전기공장 전에서 최근년간 연속적인 기술도약을 이룩하여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당당히 내놓고 오늘날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세계적수준인 밀폐식변압기생산체제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몇개 나라의 특점물품만 되어오던 권철심변압기를 설계제작하여 국제시장에 당당히 진출하였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몇년전에 또 한번의 기술도약을 이룩하여 성능이 좋으면서도 원가를 적게 들이는 반밀폐식변압기들을 개발 생산하여 경제강국건설전투장마에 보내주었다. 지난해에는 도대시 기술을 혁신하여 단 한해사이에 10여종에 달하는 밀폐식변압기들의 설계로부터 시제품생산, 생산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물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의 중요한 요인을 이 공장 일군들의 인재중시의 기업관리에서 찾아보게 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이익을 결실시켜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의입니다.>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도 모든 제품을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만드는것, 이것이 지면인 미장국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이다. 그 실현을 위

## 새 기술탐구도입에 비낀 책략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버이장군의 유훈대로 원료, 자체의 재질과 순도, 규격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정확히 보장하는 문제를 잘 꾸리던 장비가공을 접점이 좋은 밀가루 못지 않게 만물이 제품의 질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끔 되었다. 물론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전처리된 강병이공을 변상상태와 물의 색깔, 당분에 의해 전처리된 제품의 정성과 형태, 그 맛과 색깔을 저절로 좋아시키며만이다. 기술혁신의 주인은 다음해인 기술자, 기능공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층, 최첨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자체의 기술진보와 국가과학원 경영과학원을 비롯한 해당 단위 연구

## 평양 의료 품 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



생산현장에 나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본사기자 찍음

오늘 우리 당은 경영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 좋은 소비품생산을 늘임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당의 요구를 높고 볼 때 지방공업단위인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앞선 원료가공기술도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과 참신한 태도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애비와 잠재력을 넓힘이 더 동원하여 생산을 높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을 떠나가신



#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적인 문제들을 열도있게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의 호소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평화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현실이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근본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순조도 미흡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단합이나 체제대결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조국이 분열된지 70년이 되어도록 아직도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통일의 대문을 열지 못한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돌파구가 열리게 바라고있다.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은 올해 우리 민족의 투쟁목표이다.

북남관계가 대전환, 대변혁되자면 무엇보다도 그를 위한 분위기와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적인 문제들을 열도있게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의 호소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평화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현실이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의 호소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평화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의 호소문은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는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해를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을 없는 첫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력사의 해로 만들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어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정쟁연습에 가해줄것이 없습니다.》**

체제대결과 전쟁연습을 중지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화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제적이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만을 절대시하면서 상대방을 해지기 위한 체제대결과 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는 속에서 북과 남이 백날 마주앉아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영진 문제를 풀기어느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때없이 벌이는 체제대결운동과 외세와의 복합합동군사연습에 의해 좌절과 진통을 겪곤 하였다. 중대에는 《제도통일》, 《복합야방을 공공연히 드러낸 보수 《정권》의 출현으로 완전히 풍지박산나고말았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은 남조선당국의 체제대결, 복합전쟁연습운동때문에 빛을

서버릴수 있다. 우리 겨레는 반공주의적 민족의식을 발휘하면 할수록 통일애국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기 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맞게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조선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높이 떨쳐야 할때이다. 민중의 운명과 전도를 결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던 남에 있던 북과 남에 있던 관계없이 모두가 북과 남대결의 력사에 중추부를 찍고 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진민족적인 투쟁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온 겨레가 떨쳐나 자주통일의 시대를 빛내이고 민족사적사변들을 이룩하였던 그때의 열의로 뜻깊은 올해에도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기 바란다.

민중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을 때 못배낼 일이 없고 민족이 거족적인 투쟁에 파강히 떨쳐나설 때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은 물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 온 겨레가 민족의 전도는 민족의 의지와 힘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자주적운동방향을 위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열기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다. 체제대결운동, 복합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이를 반면하고 그 무슨 《대화》와 《진정성》을 운운하는것은 사실상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남조선에서 민심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한층도 못되는 인간스레기들이 당국의 비호, 묵인밑에 반공화국베라살포놀음을 빼앗아 강행하고 이에 대해 집권세력이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포다시 두둔해나선 사실 그 리고 괴뢰군부 《리리출보》, 《독서리》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은 결과 속이 다른 남조선당국의 진면모를 날같이 폭로해주고 있다. 그로 하여 지금 년초부터 고조되고 있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심히 흐리지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과연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케 한다.

체제대결과 전쟁연습은 북남대화와 절대로 쌍립될수 없다. 말로는 《대화》를 떠들면서 상대방을 모독하는 베라살포놀음을 부추기고 《평화》의 비단보자기들 쓰고 외세와의 복합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리던데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은 갈수록 멀어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세계통일》 당국과 외세와의 복합합동군사연습을 끈질기게 벌리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한다. 그들은 용납 못할 평화의 파괴자, 반통일분자로서는 정제만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것이며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박철준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 과연 대화의지가 있는가

못된 버려지 장판방에서 모로 긴다고 남조선에서 인간스레기들이 반공화국베라살포놀음에 또다시 기세를 부리고있다. 지난 19일이 인간추물들은 미국의 《인권재단》 모략군들과 함께 야밤에 경기도 파주시에 나타나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비난하는 불순한 베라들을 살포하였다. 다음날에는 기자회견까지 벌려놓고 감히 《경고용》이라느니, 무인비행기를 리용하는 살포방안도 《고려》하였다느니 하고 떠벌이며 반공화국베라살포를 더욱 확대할 흉심을 드러냈다. 인간스레기들의 망둥이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뉘니 하며 인간스레기들의 베라살포놀음을 계속 묵인조장하도록 드러내고있다는것은 더욱 분격을 자아낸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어떻게 응해나오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인간스레기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베라살포행위에 내물고있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베라살포광신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언어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힐뜯는 내용의 영화들이 DVD와 USB기억기 10만개를 넘겨준것은 미국의 《인권재단》 페거리들이다. 이렇듯 뒤에서 베라살포를 조종하고 부추기던 미국은 이제 《인권재단》 강제들을 통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올해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때에 강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도발이며 엄청난것이다. 현실은 반공화국베라살포를 주도하는 미국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 모략과 음모의 원흉이라는것을 날같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대하던 당국에 시대를 맞고있는 형편이다. 별개같은 추물들까지 하찮게 여기는 상대, 베라살포 하나 제대로 판리통제 못하는 무능한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았잖아 과연 북남관계문제에서 무엇을 온전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굴러온 돌과 같은 스레기들이 나서서 민족의 중대사를 맡쳐놓는것을 절대로 내내 버려둘수 없다. 가는 방향이 오는 흥두꺼고 인간잔학자들의 망둥이 남조선에 어떤 몹시리지는 참화를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베라살포놀음이 계속된다면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될것이며 계속되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들고 제 할바를 해야 한다.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미쳐달리는자들은 존엄한 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철영

미국은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 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더욱 높이고 지지해나갈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스레기들로부터도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있다. 기존 개 발튀족을 문다고 인간스레기들은 《베라살포놀음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